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4. 6. 제15권 2호, pp. 203~230.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과 지원 실태 파악

서 중 현*
창원토월중학교 교사
유 은 정**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과 통합교육에 따른 지원실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설문지들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일반학교의 초등 및 중등교사들에게 배포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그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자료 처리 결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으나. 일부항목에서는 교직경력과 통합교육경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직경력이 많고 통합교육의 경력이 많을수록 지원실태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교사들이 청각장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합교육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 경력의 증가와 함께 다소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확장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주제어 :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사인식,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 제1저자
** 교신저자(ejyoo@inje,ac,kr)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각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매우 부정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보고되면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Thousand, Villa, & Nevin, 2002; Sailor, Gee, & Karasoff, 2000).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청각장애아동들이 이미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9)에 의해서 청각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종전에 비교해서 매우 많아졌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에 일반학교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 수가 845명에 불과한 것이 2013년도에는 2,595명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02, 2013). 특히 이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나 직업에 따른 난청 발생률은 다소 증가하나 일반적인 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은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구성민, 김진숙, 임덕환, 2006)을 감안하면, 일반학교 통합교육에 배치된 청각장애아동의 수는 괄목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추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교사의 인식이나 지원 실태 등은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강민주, 최성규, 2011; Evans & Hwang, 2011). 더욱이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반학교에 배치 받은 청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의 통합 환경부족으로 특수학교로 되돌아가기도 한다(오혜정, 2012). 특히 최성규와 김기생(2004)는 청각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다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되돌아가는 현실적인 원인으로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함께 일반교사들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이은숙과 이정우(2012)는 또래 일반학생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통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선애와 최성규(2009)는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청각장애학생에게 개별적인 지도가 주어지기 어려운 일반학교환경 등을 청각장애학생의 통합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통합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일반교사의 교수전략의 부족(이희정, 2002) 등도 통합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의 인식 제고(Evans & Hwang, 2011), 일반교사가 장애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전략 등 전문성의 배양

www.kci.go.kr

(이희정, 2002),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일반교사의 전문성 제고나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지원과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오원석, 송혜경, 조미경, 2009)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의 인식이라고 하였다(권명옥, 김광석, 2005; 김태준, 2010; Kochhar & Taymans, 2000). 그러나 최성규와 김기생(2004)이 보고한 것처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막연한 이해(강민주, 최성규, 2011; 최성규, 김기생, 2004), 청각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감(박성하, 2009), 청각장애학생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전문성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고은, 조홍중, 2004; 이희정, 2002)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은 통합학급에 배치가 많은 경도의 정신지체 학생이나 학습장애 학생과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과 지원이 요구된다(최성규, 김기생, 2004)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합교육의 성공요건과는 다른 점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장애영역과는 다른 지원이 요구되는데, 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언어적 요구를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 청력장애 수준과 유형, 인지 특성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관리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든 장애영역의 통합교육이나 통합교육 비율이 높은 정신지제학생이나 정서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청각장애학생만의 이러한 독특한 교육적 욕구나 지원 등을 고려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지원실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지원 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2. 연구 문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초등 및 중등교사의 인식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일반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배경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

www.kci.go.kr

2)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실태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배경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학교 초등 및 중등교사이다. B시와 C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하여 총 1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교 별로 설문지 4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총 400부 중 289부(72.25%)가 회수되었고, 그 중 275부(68.7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일반교사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사의 배경변인별 특성

n(%)

대상자 변인	구 분	계	총계
성별	남자	49(17.8)	275(100)
	여자	226(82.2)	
소속	초등학교	103(37.5)	275(100)
	중등학교	172(62.5)	
교직경력	5년 미만	61(22.2)	275(100)
	5년~10년 미만	99(36.0)	
	10년 이상	115(41.8)	
통합교육 경력	3년 미만	136(49.0)	275(100)
	3년~5년 미만	91(33.1)	
	5년 이상	48(17.5)	
청각장애학생 교육경력	없음	272(98.9)	275(100)
	3년 미만	3(1.1)	

2. 연구 도구

1) 설문지 구성

www.kci.go.kr

본 연구의 도구는 Cullen, Gregory, Noto(2011)가 개발한 The Teacher Attitudes Toward Inclusion Scale(TATIS)와 Sng(2004)의 Teacher Attitude Towards Inclusive Education(TATI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연구 도구로 사용한 최성규, 강민주(2011)의 설문지를 기초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지를 개발하여 일반교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설문문항을 같이 토론하며 문항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35문항(12개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항과 23개의 지원에 대한 설문조항)에서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운 경우에 수정을 하여, 최종 32문항(10개의 통합교육인식 문항과 22개의 지원실태 인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지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사 2명(청각장애교육 박사학위 소지)과 청각장애교육 전공 교수 2명을 통해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지는 Section 1과 Section 2로 나뉘며, 연구 대상인 교사의 배경변인을 묻는 4개의 문항이 Section 1이며,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13문항과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19문항이 Section 2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에 사용된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
교사의 배경변인	소속, 성별, 교직경력, 통합교육경력, 청각장애학생 교육경력	5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13문항)	일반학교에서 교육가능성	4
	일반학교에서 적응가능성	2
	학생관리여부	1
	교육적 성취와 평가 가능성	2
	추가적인 업무의 담당 여부	1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	3
교사에 대한 지원 여부 (19문항)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청각장애에 따른 학업적, 행동적 특성)	2
	교수전략	2
	학생 관리와 보청기 등 관리	2
	학부모 상담	1
	지원서비스	3
	청각장애학생 교수와 관리를 위한 연수 등 정보 제공	5
	필요한 지원	2
	통합교육의 책임 소재	2
합 계		37

www.kci.go.kr

2) 설문지 개발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계수는 .848로 나타났다(Nunally, 1978; Van de Ven & Ferry, 1980). 또한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계수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모든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와 Bar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값은 0.751로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Barlett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할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KMO와 Barlett 검정결과

항목		값
KMO(Kaiser-Meyer-Olkin) 측도		.751
Barlett 검정	근사 카이제곱	5441.720
	자유도	496
	유의확률	.000

위와 같이 전체 모형의 유의성을 알아본 다음에, 각 요인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의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을 통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여 설문지 항목들이 몇 개의 큰 요인으로 구성되는 지와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알아보았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이 총 8개 추출되었고, 총 분산설명력은 70.2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목 중 27번 항목은 요인 부하량이 0.4 이하로 제거대상이며, 9번, 19번, 24번 항목은 두 개 추출 요인에 0.4 이상 요인 부하량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렇게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동시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문항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9번, 19번, 24번, 27번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추출 수는 8개로 동일하였으나, 전체 설명력은 73.28%로 높아졌다. 즉 앞서 밝힌 4개 항목을 제거한 것이 전체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위 4개 문항을 제거하고

www.kci.go.kr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요인분석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요인의 부하량(factor loading value)은 거의 대부분 0.5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4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보는 것(Hatch & Lazaration, 1991)을 감안할 때, 각 항목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4>는 각 구성 요인별로 항목 구분과 각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주요인 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 항	요인부하량
1	1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 가능성	.711
	2	청각장애학생이 나의(교사의) 학급에서 교육 가능	.815
	5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적응 가능성	.730
	6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 가능	.680
	7	담임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 지도 및 관리 가능	.648
	8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수행	.635
	10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685
2	3	청각장애학생 가르칠 의향	.666
	4	청각장애학생 가르치기 어려움	.690
3	1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유익성	.536
	12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유익성	.822
	1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유익성	
4	14	청각장애 특성 이해	.783
5	15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적, 행동적 특성 이해	.703
	16	청각장애학생에게 알맞은 교수전략 이해	.814
6	17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자료에 대한 지식	.697
	18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에 대한 지식	.676
	20	청각장애 학생의 학부모 상담에 대한 지식	.743
	21	지역교육청 등의 통합교육 지원제공에 대한 인지	.782
	22	교과수업시 보조적 학습지원 지식	.743
	23	시험평가시 시험조정 여부를 아는 지	.757
7	25	연수를 통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정보획득 여부	.702
	26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여부	.826
8	28	교육청의 통합교육 정보 제공 책임 여부	.642
	29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적 지원 필요 여부	.858
	30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필요 여부	.840
	31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동 교육 책임 여부	.803
	32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의 책임 여부	.700

www.kci.go.kr

8개의 추출된 요인은 각 항목의 공통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 1은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리, 요인 2는 청각장애학생 교육 의도, 요인 3은 통합교육의 효과성, 요인 4와 요인 5는 거의 같은 요인을 측정하여 함께 묶어서 청각장애의 특성과 교수전략으로 하였으며, 요인 6은 통합교육 지원 정보 활용여부, 요인 7은 통합교육 정보 획득과 공유, 요인 8은 청각장애학생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책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에서 요인 1과 2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요인 3부터 8까지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따른 지원 실태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요인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료 처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총 28문항(통합교육의 인식과 관련된 9개 문항과 지원실태 인식과 관련된 19개 문항)이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그리고 일반교사들이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이 적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이 교사배경별로 차이가 있는지 문항별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당위성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www.kci.go.kr

〈표 5〉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8(7.8)	67(65.0)	14(13.6)	14(13.6)	103(100)	7.420 (p=.060)
	중등	31(18.0)	108(62.8)	20(11.6)	13(7.6)	172(100)	
	계	39(14.2)	175(63.6)	34(12.4)	27(9.8)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4(6.6)	35(57.4)	14(23.0)	8(13.1)	61(100)	46.448* (p=.000)
	5년 ~ 10년 미만	27(27.3)	68(68.7)	4(4.0)	0(0)	99(100)	
	10년 이상	8(7.0)	72(62.6)	16(13.9)	19(16.5)	115(100)	
	계	39(14.2)	175(63.6)	34(12.4)	27(9.8)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5(11.0)	85(62.5)	21(15.4)	15(11.0)	136(100)	7.806 (p=.554)
	3년 ~ 5년 미만	17(18.7)	56(61.5)	9(9.9)	9(9.9)	91(100)	
	5년 이상	7(16.3)	34(70.3)	4(9.3)	3(7.0)	48(100)	
	계	39(14.2)	175(63.6)	34(12.4)	27(9.8)	275(100)	

*p<.05

<표 5>에서 보듯이, 일반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교육경력별 차이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경력 5~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동의함에 96%를 나타낸 반면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나 5년 미만 경력 교사들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각 13.1%, 16.5%로 5~10년 경력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경력이 5~10년 정도의 교사가 통합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표 6〉 청각장애학생의 통합학급 배치에 대한 인식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14(13.6)	69(67.0)	20(19.4)	0(0)	103(100)	5.191 (p=.158)
	중등	22(12.8)	114(66.3)	28(16.3)	8(4.7)	172(100)	
	계	36(13.1)	183(66.5)	48(17.5)	8(2.9)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3)	38(62.3)	21(34.4)	0(0)	61(100)	47.485* (p=.000)
	5년 ~ 10년 미만	26(26.3)	65(65.7)	8(8.1)	0(0)	99(100)	
	10년 이상	8(7.0)	80(69.6)	19(16.5)	8(7.0)	115(100)	
	계	36(13.1)	183(66.5)	48(17.5)	8(2.9)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9(14.0)	84(61.8)	29(21.3)	4(2.9)	136(100)	13.235** (p=.039)
	3년 ~ 5년 미만	15(16.5)	57(62.6)	15(16.5)	4(4.4)	91(100)	
	5년 이상	2(4.2)	42(87.5)	4(8.3)	0(0)	48(100	
	계	36(13.1)	183(66.5)	48(17.5)	8(2.9%)	275(100)	

*p<.001, **p<.05

www.kci.go.kr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경력과 통합교육의 경력에 따라 통합학급배치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거의 80%)는 통합학급배치에 동의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교육 경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47.485, p=.000). 그러나 통합교육경력 변인에서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는 92% 정도 통합학급배치에 동의하고, 통합교육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들은 배치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통합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13.235**, p=.039)을 보여준다.

<표 7>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적응 가능성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0(0)	67(65.0)	30(29.1)	6(5.8)	103(100)	7.780 (p=.051)
	중등	4(2.3)	95(55.2)	69(40.1)	4(2.3)	172(100)	
	계	4(1.5)	162(58.9)	99(36.0)	10(3.6)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1.6)	34(55.7)	25(41.0)	1(1.6)	61(100)	29.945* (p=.000)
	5년~10년 미만	1(1.0)	77(77.8)	21(21.2)	0(0)	99(100)	
	10년 이상	2(1.7)	51(44.3)	53(46.1)	9(7.8)	115(100)	
	계	4(1.5)	162(58.9)	99(36.0)	10(3.6)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0.7)	84(61.8)	46(33.8)	5(3.7)	136(100)	21.775* (p=.001)
	3년~5년 미만	1(1.1)	61(67.0)	24(26.4)	5(5.5)	91(100)	
	5년 이상	2(4.2)	17(34.5)	29(60.4)	0(0)	48(100)	
	계	4(1.5)	162(58.9)	99(36.0)	10(3.6)	275(100)	

*p<.05

<표 7>를 살펴보면, 교육경력에서도 거의 60%에 가까운 교사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40%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경력군에 비교하여 5년~10년 미만 경력군에서는 매우 동의함이 상대적으로 비율(약 78%)이 높았다. 이러한 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29.945, p=.000)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합교육경력에서도 전체의 약 65%의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경력 5년 이상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급 적응가능성에 대해 60.4% 비율로 '약간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x^2=21.775 p=.001)을 보여준다. 이는 통합교육의 경험을 5년 이상 가진 교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www.kci.go.kr

〈표 8〉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상호작용 가능성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0(0)	49(47.6)	44(42.7)	10(9.7)	103(100)	6.721 (p=.081)
	중등	7(4.7)	82(47.7)	75(43.6)	8(4.7)	172(100)	
	계	7(2.5)	131(47.6)	119(43.3)	18(6.5)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3)	24(39.3)	27(44.3)	8(13.1)	61(100)	22.326* (p=.001)
	5년~10년 미만	3(3.0)	62(62.6)	34(34.3)	0(0)	99(100)	
	10년 이상	2(1.7)	45(39.1)	58(50.4)	10(8.7)	115(100)	
	계	7(2.5)	131(47.6)	119(43.3)	18(6.5)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2.9)	69(50.7)	50(36.8)	13(9.6)	136(100)	11.743 (p=.068)
	3년~5년 미만	1(1.1)	44(48.4)	41(45.1)	5(5.5)	91(100)	
	5년 이상	2(4.2)	18(37.5)	28(58.3)	0(0)	48(100)	
	계	7(2.5)	131(47.6)	119(43.3)	18(6.5)	275(100)	

*p<.05

<표 8>를 보면,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초등 및 중등교사들이 변인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50% 정도의 교사들이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육경력에서도 5년~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x^2=22.326 p=.001)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사가 상호작용 가능성에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통합교육경력이 많아질수록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변인간에는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의 지도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인식

〈표 9〉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사 능력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11(10.7)	61(59.2)	26(25.2)	5(4.9)	103(100)	3.248 (p=.355)
	중등	19(11.0)	91(52.9)	58(33.7)	4(2.3)	172(100)	
	계	30(10.9)	152(55.3)	84(30.5)	9(3.3)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5(8.2)	34(55.7)	21(34.4)	1(1.6)	61(100)	19.993* (p=.003)
	5년~10년 미만	17(17.2)	61(61.6)	21(21.2)	0(0)	99(100)	
	10년 이상	8(8.7)	57(49.6)	42(36.5)	8(8.7)	115(100)	
	계	30(10.9)	152(55.3)	84(30.5)	9(3.3)	275(100)	

www.kci.go.kr

〈표 9〉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사 능력 (계속)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23(16.9)	76(55.9)	32(23.5)	5(3.7)	136(100)	18.537 (p=.005)
	3년 ~ 5년 미만	5(5.5)	53(58.2)	29(31.9)	4(4.4)	91(100)	
	5년 이상	2(4.2)	23(47.9)	23(47.9)	0(0)	48(100)	
	계	30(10.9)	152(55.3)	84(30.5)	9(3.3)	275(100)	

$^*p$<.05

<표 9>를 살펴보면, 담임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 초등교사들과 중등교사들은 약 70%에 가까운 교사들이 동의하는 반면에 약 30%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육경력에서는 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이 담임교사들의 관리 능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x^2=19.993, p=.003)하였다.

〈표 10〉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20(19.4)	63(61.2)	19(18.4)	1(1.0)	103(100)	1.556 (p=.669)
	중등	27(15.7)	113(65.7)	28(16.3)	4(2.3)	172(100)	
	계	47(17.1)	176(64.0)	47(17.1)	5(1.8)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2(19.7)	37(60.7)	11(18.0)	1(1.6)	61(100)	12.665* (p=.049)
	5년 ~ 10년 미만	23(23.2)	65(65.7)	11(11.1)	0(0)	99(100)	
	10년 이상	12(10.4)	74(64.3)	25(21.7)	4(3.5)	115(100)	
	계	47(17.1)	176(64.0)	47(17.1)	5(1.8)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35(25.7)	77(56.6)	23(16.9)	1(0.7)	136(100)	11.743 (p=.068)
	3년 ~ 5년 미만	8(8.8)	66(72.5)	13(14.3)	4(4.4)	91(100)	
	5년 이상	4(8.3)	33(68.8)	11(22.9)	0(0)	48(100)	
	계	47(17.1)	176(64.0)	47(17.1)	5(1.8)	275(100)	

$^*p$<.05

<표 10>를 살펴보면, 담임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 입급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 초등 및 중등교사들의 약 80% 정도가 동의하였다. 교육경력에서는 5년 ~ 10년 미만 경력 교사들은 일반교사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약 90%로 높은 반면, 5년 미만과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추가적인

www.kci.go.kr

업무 부담에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20%로 다소 높았다. 이러한 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12.665, p=.049)을 보여준다.

〈표 11〉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의 동일한 평가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46(44.7)	51(49.5)	6(5.8)	0(0)	103(100)	10.648* (p=.014)
	중등	53(30.8)	93(54.1)	16(9.3)	10(5.8)	172(100)	
	계	99(36.0)	144(52.4)	22(8.0)	10(3.6)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0(32.8)	33(54.1)	8(13.1)	0(0)	61(100)	29.261* (p=.000)
	5년~10년 미만	51(51.5)	45(45.5)	0(0)	3(3.0)	99(100)	
	10년 이상	28(24.3)	66(57.5)	14(12.2)	7(6.1)	115(100)	
	계	99(36.0)	144(52.4)	22(8.0)	10(3.6)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63(46.3)	60(44.1)	13(9.6)	0(0)	136(100)	39.767* (p=.000)
	3년~5년 미만	30(33.0)	54(59.3)	0(0)	7(7.7)	91(100)	
	5년 이상	6(12.5)	30(62.5)	9(18.8)	3(6.3)	48(100)	
	계	99(36.0)	144(52.4)	22(8.0)	10(3.6)	275(100)	

*p<.001

<표 11>를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등 교사들은 약 95% 비율로 동의하지만, 중등교사들은 약 75% 정도만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속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10.648, p=.014)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경력 변인에서는 5년~10년 미만 경력 교사의 약 96%는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29.261, p=.000)을 보여준다. 통합교육경력에서도 5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함(x^2=39.767, p=.000)을 보여준다.

〈표 12〉 일반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도 의향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7(6.8)	56(54.4)	36(35.0)	4(3.9)	103(100)	4.028 (p=.258)
	중등	12(7.0)	111(64.5)	41(23.8)	8(4.7)	172(100)	
	계	19(6.9)	167(60.7)	77(28.0)	12(4.4)	275(100)	

www.kci.go.kr

〈표 12〉 일반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도 의향 (계속)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교육 경력	5년 미만	2(3.3)	40(65.6)	18(29.5)	1(1.6)	61(100)	9.057 (p=.042)
	5년~10년 미만	12(12.1)	60(60.6)	27(27.3)	0(0)	99(100)	
	10년 이상	5(4.3)	67(58.3)	32(27.8)	11(9.6)	115(100)	
	계	19(6.9)	167(60.7)	77(28.0)	12(4.4)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4(10.3)	77(56.6)	37(27.2)	8(5.9)	136(100)	25.313* (p=.000)
	3년~5년 미만	3(3.3)	48(52.7)	36(39.6)	4(4.4)	91(100)	
	5년 이상	2(4.2)	42(87.5)	4(8.3)	0(0)	48(100)	
	계	19(6.9)	167(60.7)	77(28.0)	12(4.4)	275(100)	

*p<.001

<표 12>를 살펴보면, 일반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초등, 중등 교사들이 약 60% 비율로 동의하였으며, 교직경력별에서도 약 60% 비율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통합교육경력에서는 5년 미만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30~40%에 이르는 반면에 오히려 5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9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x^2=25.313, p=.000)을 보여준다.

〈표 13〉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부담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1(1.0)	42(40.8)	40(38.8)	20(19.4)	103(100)	2.818 (p=.421)
	중등	6(3.5)	72(41.9)	55(32.0)	39(22.7)	172(100)	
	계	7(2.5)	114(41.5)	95(34.5)	59(21.5)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3(4.9)	28(45.9)	20(32.8)	10(16.4)	61100()	15.150* (p=.019)
	5년~10년 미만	2(2.0)	52(52.5)	28(28.3)	17(17.2)	99(100)	
	10년 이상	2(1.7)	34(29.6)	47(40.9)	32(27.8)	115(100)	
	계	7(2.5)	114(41.5)	95(34.5)	59(21.5)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6(4.4)	65(47.8)	37(27.2)	28(20.6)	136(100)	11.597 (p=.072)
	3년~5년 미만	0(0)	31(34.1)	40(44.0)	20(22.0)	91(100)	
	5년 이상	1(2.1)	18(37.5)	18(37.5)	11(22.9)	48(100)	
	계	7(2.5)	114(41.5)	95(34.5)	59(21.5)	275(100)	

*p<.05

www.kci.go.kr

<표 13>를 살펴보면, 일반교사의 입장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에 대한 문항에 약 60%의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음으로,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보면, 교육경력에서는 5년 ~ 10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약 50%)이 높은 반면에 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 35%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경력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 = 15.150, p=.019)을 보여준다.

3)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효과

<표 14> 청각장애학생에게 통합교육의 유익함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27(26.2)	71(68.9)	5(4.9)	0(0)	103(100)	11.597 (p=.072)
	중등	36(20.9)	108(62.8)	28(16.3)	0(0)	172(100)	
	계	63(22.9)	179(65.1)	33(12.0)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6(26.2)	36(59.0)	9(14.8)	0(0)	61(100)	7.996 (p=.092)
	5년 ~ 10년 미만	24(24.2)	70(70.7)	5(5.1)	0(0)	99(100)	
	10년 이상	23(20.0)	73(63.5)	19(16.5)	0(0)	115(100)	
	계	63(22.9)	179(65.1)	33(12.0)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2(30.9)	85(62.5)	9(6.6)	0(0)	136(100)	15.736* (p=.003)
	3년 ~ 5년 미만	16(17.6)	61(67.0)	14(15.4)	0(0)	91(100)	
	5년 이상	5(10.4)	33(68.8)	10(20.8)	0(0)	48(100)	
	계	63(22.9)	179(65.1)	33(12.0)	0(0)	275(100)	

*p<.05

<표 14>에서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초등, 중등 교사들은 약 90% 그리고 교육경력 변인에서도 85~90% 비율 정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통합교육경력에서는 경력이 많아질수록 통합교육의 유익함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x^2 = 15.736, p=.003)를 나타냈다.

<표 15> 일반학생에게 통합교육의 유익함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11(10.7)	84(81.6)	6(5.8)	2(1.9)	103(100)	19.246* (p=.000)
	중등	4(2.3)	136(79.1)	32(18.6)	0(0)	172(100)	
	계	15(5.5)	220(80.0)	38(13.8)	2(0.7)	275(100)	

www.kci.go.kr

〈표 15〉 일반학생에게 통합교육의 유익함 (계속)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교육 경력	5년 미만	9(14.8)	42(68.9)	10(16.4)	0(0)	61(100)	21.687* (p=.001)
	5년~10년 미만	0(0)	89(89.9)	10(10.1)	0(0)	99(100)	
	10년 이상	6(5.2)	89(77.4)	18(15.7)	2(1.7)	115(100)	
	계	15(5.5)	220(80.0)	38(13.8)	2(0.7)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0(7.4)	105(77.2)	19(14.0)	2(1.5)	136(100)	7.218 (p=.301)
	3년~5년 미만	5(5.5)	76(83.5)	10(11.0)	0(0)	91(100)	
	5년 이상	0(0)	39(81.3)	9(18.8)	0(0)	48(100)	
	계	15(5.5)	220(80.0)	38(13.8)	2(0.7)	275(100)	

*p<.05

<표 15>에서는 일반학생이 통합교육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초등 교사들은 약 95% 비율로 동의하지만, 중등교사들은 약 80% 가까운 교사들만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속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19.246, p=.000)을 보여준다. 교육경력에서는 10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약 90%)이 높은 반면에 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은 동의하는 비율이 약 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속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21.687, p=.001)을 보여준다.

〈표 16〉 일반교사에게 통합교육의 유익함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38(36.9)	46(44.7)	16(15.5)	3(2.9)	103(100)	16.053* (p=.001)
	중등	29(16.9)	93(54.1)	47(27.3)	3(1.7)	172(100)	
	계	67(24.4)	139(50.5)	63(22.9)	6(2.2)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0(32.8)	30(49.2)	10(16.4)	1(1.6)	1(100)	8.596 (p=.198)
	5년~10년 미만	22(22.2)	52(52.5)	25(25.3)	0(0)	99(100)	
	10년 이상	25(21.7)	57(49.6)	28(24.3)	5(4.3)	115(100)	
	계	67(24.4)	139(50.5)	63(22.9)	6(2.2)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5(33.1)	60(44.1)	28(20.6)	3(2.2)	136(100)	14.557 (p=.024)
	3년~5년 미만	17(18.7)	48(52.7)	23(25.3)	3(3.3)	91(100)	
	5년 이상	5(10.4)	31(64.6)	12(25.0)	0(0)	48(100)	
	계	67(24.4)	139(50.5)	63(22.9)	6(2.2)	275(100)	

*p<.05

www.kci.go.kr

<표 16>에서 살펴보면, 일반교사가 통합교육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해 초등 교사들은 약 80% 비율로 동의하지만, 중등교사들은 약 70% 교사들만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속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x^2=16.053, p=.001)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경력 교사들은 대체로 모든 교사들이 75~80%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교육경력에서도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75% 비율로 동의함을 나타냈다.

2.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 실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실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과 같은 요인으로 나누어 지원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결과의 내용은 실태에 대한 응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일반교사는 청각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학습적·행동적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며, 청각장애학생에게 알맞은 교수전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대부분의 교사(90~97%)는 답하였다. 교사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통합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교사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 실태

청각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보제공 실태를 알아보았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준비,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 제공, 청각장애학생의 학부모와의 상담, 지역교육청 등에서의 통합교육지원서비스 제공, 교과수업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시험 평가시 시험 조정에 대한 지원 등의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변인별 인식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표 17〉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준비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62(60.2)	39(37.9)	2(1.9)	0(0)	103(100)	17.447* (p=.000)
	중등	75(43.6)	66(38.4)	31(18.0)	0(0)	172(100)	
	계	137(49.8)	105(38.2)	33(12.0)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36(59.0)	19(31.1)	6(9.8)	0(0)	61(100)	9.058 (p=.060)
	5년~10년 미만	47(47.5)	34(34.3)	18(18.2)	0(0)	99(100)	
	10년 이상	54(47.0)	52(45.2)	9(7.8)	0(0)	115(100)	
	계	137(49.8)	105(38.2)	33(12.0)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72(52.9)	52(38.2)	12(8.8)	0(0)	136(100)	4.599 (p=.331)
	3년~5년 미만	46(50.5)	33(36.3)	12(13.2)	0(0)	91(100)	
	5년 이상	19(39.6)	20(41.7)	9(18.8)	0(0)	48(100)	
	계	137(49.8)	105(38.2)	33(12.0)	0(0)	275(100)	

*p<.05

<표 17>에서는 일반교사가 청각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80~90% 교사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교사들은 약 98% 그리고 중등교사들은 약 82%가 학습자료 준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소속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x^2=17.447, p=.000)하였다. 실제적으로 학습자료 준비에 대한 실태라기보다는 교사들이 파악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8〉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34(33.0)	40(38.8)	29(28.2)	0(0)	103(100)	2.003 (p=.367)
	중등	47(27.3)	63(36.6)	62(36.0)	0(0)	172(100)	
	계	81(29.5)	103(37.5)	91(33.1)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6(42.6)	15(24.6)	20(32.8)	0(0)	61100()	12.323* (p=.015)
	5년~10년 미만	19(19.2)	42(42.4)	38(38.4)	0(0)	99(100)	
	10년 이상	36(31.3)	46(40.0)	33(28.7)	0(0)	115(100)	
	계	81(29.5)	103(37.5)	91(33.1)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5(33.1)	46(33.8)	45(33.1)	0(0)	136(100)	3.249 (p=.517)
	3년~5년 미만	26(28.6)	35(38.5)	30(33.0)	0(0)	91(100)	
	5년 이상	10(20.8)	22(45.8)	16(33.3)	0(0)	48(100)	
	계	81(29.5)	103(37.5)	91(33.1)	0(0)	275(100)	

*p<.05

www.kci.go.kr

<표 18>을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이 하고 있는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초등, 중등교사의 약 70%가 잘 알지 못한다에 동의하였다. 교육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2.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x^2=12.323, p=.015)하였다.

<표 19> 시험 평가시 시험조정에 대한 지원 실태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51(49.5)	36(35.0)	16(15.5)	0(0)	103(100)	25.066* (p=.000)
	중등	40(23.3)	112(65.1)	20(11.6)	0(0)	172(100)	
	계	91(33.1)	148(53.8)	36(13.1)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6(26.2)	34(55.7)	11(18.0)	0(0)	61100()	2.973 (p=.562)
	5년~10년 미만	34(34.3)	52(52.5)	13(13.1)	0(0)	99(100)	
	10년 이상	41(35.7)	62(53.9)	12(10.4)	0(0)	115(100)	
	계	91(33.1)	148(53.8)	36(13.1)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4(32.4)	75(55.1)	17(12.5)	0(0)	136(100)	3.158 (p=.532)
	3년~5년 미만	34(37.4)	43(47.3)	14(15.4)	0(0)	91(100)	
	5년 이상	13(27.1)	30(62.5)	5(10.4)	0(0)	48(100)	
	계	91(33.1)	148(53.8)	36(13.1)	0(0)	275(100)	

*p<.05

<표 19>에서는 일반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시험조정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80~90%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시험 조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소속별로 초등 교사들은 약 50%, 중등교사들은 약 23.3%가 매우 동의함에서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함(x^2=25.066, p=.000)을 나타냈다.

그 외 통계적으로 교사변인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사가 청각장애학생 학부모와 상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교사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교사는 지역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통합교육 지원서비스와 교과수업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의 문항에서 각각 약 80%와 95% 이상이 동의하였다. 즉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이 아주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3)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 실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일반교사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실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www.kci.go.kr

〈표 20〉 특수교육연수를 통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정보제공 실태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36(35.0)	50(48.5)	17(16.5)	0(0)	103(100)	4.289 (p=.117)
	중등	43(25.0)	105(61.0)	24(14.0)	0(0)	172(100)	
	계	79(28.7)	155(56.4)	41(14.9)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5(24.6)	42(68.9)	4(6.6)	0(0)	61100()	9.944* (p=.041)
	5년~10년 미만	29(29.3)	48(48.5)	22(22.2)	0(0)	99(100)	
	10년 이상	35(30.4)	65(56.5)	15(13.0)	0(0)	115(100)	
	계	79(28.7)	155(56.4)	41(14.9)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44(32.4)	75(55.1)	17(12.5)	0(0)	136(100)	6.404 (p=.171)
	3년~5년 미만	28(30.8)	48(52.7)	15(16.5)	0(0)	91(100)	
	5년 이상	7(14.6)	32(66.7)	9(18.8)	0(0)	48(100)	
	계	79(28.7)	155(56.4)	41(14.9)	0(0)	275(100)	

*p<.05

<표 20>을 살펴보면, 초등과 중등교사 그리고 통합교육경력에 상관없이 약 85%의 교사들이 특수교육연수를 통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경력 변인에서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들의 약 93% 정도가 연수를 통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x^2 = 9.944, p=.041)하였다.

〈표 21〉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일반교사 간의 정보공유 실태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44(42.7)	52(50.5)	7(6.8)	0(0)	103(100)	1.274 (p=.529)
	중등	64(37.2)	91(52.9)	17(9.9)	0(0)	172(100)	
	계	108(39.3)	143(52.0)	24(8.7)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37.7)	38(62.3)	0(0)	0(0)	61100()	11.187* (p=.025)
	5년~10년 미만	41(41.4)	44(44.4)	14(14.1)	0(0)	99(100)	
	10년 이상	44(38.3)	61(53.0)	10(8.7)	0(0)	115(100)	
	계	108(39.3)	143(52.0)	24(8.7)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57(41.9)	74(54.4)	5(3.7)	0(0)	136(100)	14.014* (p=.007)
	3년~5년 미만	37(40.7)	45(49.5)	9(9.9)	0(0)	91(100)	
	5년 이상	14(29.2)	24(50.0)	10(20.8)	0(0)	48(100)	
	계	108(39.3)	143(52.0)	24(8.7)	0(0)	275(100)	

*p<.05

www.kci.go.kr

<표 21>에서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정보를 일반교사 간에 공유하는 실태에서는 약 90%의 초등, 중등교사들은 정보공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교육경력별로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 5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에 비해 더욱 실태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며 거의 100% 정도로 반응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나타냈다. 한편 통합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는 일반교사 간에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교사들 간에 전보공유 경험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4.014, p=.007).

4)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교육청의 정보제공 책무와 학습적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를 일반교사가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일반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교사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며, 교사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22> 교육청의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책무 실태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87(84.5)	16(15.5)	0(0)	0(0)	103(100)	3.768 (p=.152)
	중등	131(76.2)	38(22.1)	3(1.7)	0(0)	172(100)	
	계	218(79.3)	54(19.6)	3(1.1)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52(85.2)	9(14.8)	0(0)	0(0)	61(100)	8.613 (p=.072)
	5년~10년 미만	83(83.8)	16(16.2)	0(0)	0(0)	99(100)	
	10년 이상	83(72.2)	29(25.2)	3(2.6)	0(0)	115(100)	
	계	218(79.3)	54(19.6)	3(1.1)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120(88.2)	16(11.8)	0(0)	0(0)	136(100)	25.543* (p=.000)
	3년~5년 미만	66(72.5)	25(27.5)	0(0)	0(0)	91(100)	
	5년 이상	32(66.7)	13(27.1)	3(6.3)	0(0)	48(100)	
	계	218(79.3)	54(19.6)	3(1.1)	0(0)	275(100)	

*p<.05

<표 22>를 보면, 교육청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약 99%의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경력변인에서는 오히려 경력이 많을수록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다소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x^2=25.543, p=.000).

www.kci.go.kr

〈표 23〉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성

n(%)

구 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안함	매우 동의안함	계	$x^2(p)$
학교별	초등	65(63.1)	28(27.2	10(9.7)	0(0)	103(100)	4.590 (p=.101)
	중등	114(66.3)	52(30.2)	6(3.5)	0(0)	172(100)	
	계	179(65.1)	80(29.1)	16(5.8)	0(0)	275(100)	
교육 경력	5년 미만	34(55.7)	24(39.3))	3(4.9)	0(0)	61100()	13.183* (p=.010)
	5년~10년 미만	73(73.7)	25(25.3)	1(1.0)	0(0)	99(100)	
	10년 이상	72(62.6)	31(27.0)	12(10.4)	0(0)	115(100)	
	계	179(65.1)	80(29.1)	16(5.8)	0(0)	275(100)	
통합 교육 경력	3년 미만	90(66.2)	35(25.7)	11(8.1)	0(0)	136(100)	8.607 (p=.072)
	3년~5년 미만	54(59.3)	35(38.5)	2(2.2)	0(0)	91(100)	
	5년 이상	35(72.9)	10(20.8)	3(6.3)	0(0)	48(100)	
	계	179(65.1))	80(29.1)	16(5.8)	0(0)	275(100)	

*p<.05

<표 23>을 보면,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약 85%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교육경력별로는 5년~10년 미만 경력 교사들은 매우 동의함에서 73.7%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x^2=13.183, p=.010).

그 외에, 청각장애학생에게 학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약 85%,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90% 그리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일반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95% 이상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Ⅳ. 논 의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 일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교육적 지원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의 실태는 어떤지 또한 이에 대해 일반교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 경력별 인식의 차이가 다른 연구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박혜진, 이승희(2008) 등의 선행 연구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직경력 5~10년 경력 교사들은 청각

www.kci.go.kr

장애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 실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교직경력이 10년 이상 교사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과 지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통합교육경력에서도 5년 이상 경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김선애와 최성규(2009), 최혜숙(200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된다. 또한 통합교육 경력이 많을수록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강민주와 최성규(2011)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비교된다. 그러나 교직경력, 통합교육경력 변인에 다른 본 연구의 결과는 Mandell과 Strain(1978), Semmel, Abernathy, Butera와 Lesar(1979) 등이 일반교사가 경력이 많아질수록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이 많아지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결국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즉 교직경력이 많아질수록, 교육현장의 지원 실태가 열약한 상태에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직경력별과 통합교육 경력별로 교사인식 차이에 대한 변인을 후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인식 중에서 교육경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한 것이다. 즉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담임교사로서 청각장애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교육 경력 5년 ~ 10년 교사들의 인식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 또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여부와 일반학교에서 적응가능성과 내 학급에서 학습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교육경력 5년 ~ 10년 교사들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50% 내외 교사가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청각장애학생 가르칠 의향에서는 오히려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들이 높은 비율로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 결과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경력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보면,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점차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통합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성이 부족해지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윤경과 이소현(2003), 도성화과 전헌선(2003)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통합경험이 많을수록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결과와 비교된다. 그러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장애학생과의 성공적인 교육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서현아, 송은희, 2002; Robert & Pratt, 1987) 측면에서 부족한 지원 실태에서

www.kci.go.kr

일반교사가 크게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교직경력이나 통합경력이 높을수록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의 미흡함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부족함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교사들은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실태를 인식하였다. 특히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통합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청 등에서 제공되는 통합교육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준비나 생활지도 지원이나 교육청 정보 제공 등 지원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통합경력이 높을수록 잘 알지 못하며 부족한 지원 실태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 실태에 대해서 일반교사들은 청각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습, 학교생활, 교수전략, 학습자료 제공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처럼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 해오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인 김순자(2007), 김주홍(2004)의 연구는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국립특수교육원,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행정적인 체계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청각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효과는 일반교사의 인식에 달려있다(김태준, 2010; Kochhar & Taymans, 2000; Olson, 1997)는 점을 고려하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는 청각장애학생과 일반교사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을 뒷받침하고 그 통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일반교사들과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통합교육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본 연구에서 드러난 통합교육의 지원 실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제한점을 제시하면, 임의로 선정된 10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지원 실태 설문 문항이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째, 일반교사들은 교사배경변인에 상관없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육경력과 통합교육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교육경력이 5년~10년 미만인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교사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긍정적 인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실태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은 교사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학생의 특성과 교수자료와 평가지원 등에 대해 일반교사는 잘 모르고 있으며,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90% 이상이 동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교사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인식에는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가 성공적인 교육적 경험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중요하므로, 교육청이나 국립특수교육원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사의 교수전략이나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보다 확장적인 통합교육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는 학습전략, 평가전략, 학습자료 등 학습 및 평가 지원과 학교생활적응 지원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및 청각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충분한 연수기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실천기관인 지역 내 지역교육청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맡고 있는 일반교사나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그 필요성을 파악하여 해당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특수교육 지원 센터의 방문 지원은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문제나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수시로 체크하여 지원을 하며, 또한 일반교사에게도 상담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주, 최성규 (2011).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 만족도에 대한 관계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4), 197-217.

고 은, 조홍중 (2004).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 7**(1), 167-178.

고종욱, 류 철 (2011).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도서출판 그린.

교육부 (2002). **2002. 특수교육통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2013). **2013. 특수교육통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www.kci.go.kr

구성민, 김진숙, 임덕환 (2006). 한국의 장애인 실태조사 요약(청각장애 중심으로). **청능재활, 2,** 52-57.

권명옥, 김광석 (2005).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중학교 일반 교사들의 태도.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2), 123-147.

김선애, 최성규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10**(4), 471-490.

김순자 (2007). 장애유아 통합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주홍 (2004). 장애중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사 인식.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태준 (2010). 통합교육 관련변인에 대한 통합교사 인식 실태분석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성화, 전헌선 (2003).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1,** 253-270.

박성하 (2009). 초등학교 교사의 청각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박혜진, 이승희 (2008). 자폐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23-144.

서현아, 송은희 (2002). 유치원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4), 125-152.

오원석, 송혜경, 조미경 (2009). 초등학교 교사의 청각장애 인식과 통합교육 태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연구, 16**(1), 83-111.

오혜정 (2012). 청각장애유아의 초등학교 통합교육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1), 21-38.

이은숙, 이정우 (2012).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시한 통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1), 127-141.

이희정 (2002).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윤경 (2008). 영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중등 영어교사 및 학습자 인식조사. **Foreign Language Education, 15**(2), 2-30.

조윤경, 이소현 (2003). 장애유아 통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37**(4), 297-318.

최성규, 김기생 (2004).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태도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5), 71-92.

최정미, 박외곤 (2012). 학습장애에 대한 초중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재활연구, 51**(3), 291-311.

최혜숙 (2009). 국립초등학교교사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경인대학교 교육학원.

Cullen, C., Gregory, J., & Noto, L. (2011). *The Teacher Attitudes Toward Inclusion Scale(TATIS)*(Tech, Rep. No. 1). USA: Easter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vans, D., & Hwang, Y. (2011). *Attitudes toward inclusion: gaps between belief and*

www.kci.go.k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6, 136-145.

Hatch, E., & Lazaration, A. (1991). *The research manual: Design and statistics for applied lingustics.* Boston: Heine & Heine.

Kochhar, C. A., & Taymans, J. M. (2000). *Successful inclusion: Practical strategies or shared responsibility.* Upper saddle River, NY: Prentice Hall.

Mandel, C. J., & Strain, P. S. (1978). A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attitudes of regular classroom teachers toward mainstreaming mildly handicapped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154-16.

Nu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oe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Olson, C. A. (1997). Attitudes and attributes of general education teachers identified as effective inclusionists. *Remedial & Special Education, 18*(1), 8-28.

Roberts, C., & Pratt, C. (1987). The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aff toward the integration of mildly handicapped children. In Bartnik, E. A., Lewis, S. M. & O' Connor, *P. A. Technology, Resources and Consumer Outcomes: Proceedings of the Twenty-Third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llectual Disability*, Perth, Western Australia: P. E. Publications.

Sailor, W., Gee, K., & Karasoff, P. (2000). Inclusion and school restructuring. In M. E. Snell & F. Brown (Eds.),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5th ed.* (pp. 1-30).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Inc.

Semmel, M. I., Abernathy, T. V., Butera, G., & Lesar, S. (1991). Teacher perceptions of the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Exceptional Children, 58,* 9-24.

Sng, C. (2004). *Teacher Attitude Towards Inclusive Education (TATIE): An instrument design and construct validition study.* NY: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Stainback, W., & Stainback, S. (Eds.). (1990). *Support networks for inclusive schooling: Interdependent integrated educa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Thousand, J. S., Villa, R. A., & Nevin, A. I. (2002). *Creativity and collaborative learning: The practical guide to empowering students, teachers, and families* (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U.S.A.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2002). *24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Retrieved April 25, 2014, from: http://www.ed.gov/about/reports/annual/osep/2002/execsumm.html.

Van de Ven, A., & Ferry, D. L.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John Welly and sons.

www.kci.go.kr

Survey on the understandings of general classroom teacher about educat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upporting the teacher of a inclusive school

Seo, Jung Hyun
Changwon Toworl Middle School
Yoo, Eun Jung
Inje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A lot of studies on teachers attitude toward inclusion showed their understandings about student with disabilities were getting better. The number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studying with general teacher in general classrooms is increasing. There, however, are a few researches on inclus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general classroom. By using 400 questionnaires based from TATIS and TATIE, this study investigated understandings of general classroom teacher about educat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upports for the teacher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289 of the questionnaires sent out to teachers of 10 schools were returned. Finally, 275 of them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st of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inclus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a tendency that teachers with teaching experience for 5~10 years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inclusive education. And the study found that the more teacher experienced t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less the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teaching hearing impaired students. For the sake of helping the teacher, a lo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s have to apply real supports for teachers to educate hearing impaired students well and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o study without many difficulties.

Key Words : inclusion, teacher awareness,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논문 접수: 2014. 05. 07 심사 시작: 2014. 05. 09 게재 확정: 2014. 06. 18

www.kci.go.kr